

배우 이병헌 “개봉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느껴요”

오는 3일 개봉 재난영화 ‘비상선언’ 출연
딸과 함께 비행기 탄 아빠 ‘재혁’ 맡아 열연

배우 이병헌(52)의 필모그래피는 ‘남산의 부장들’에서 멈춰있다. ‘남산의 부장들’은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20년 1월에 개봉했다. 이 작품을 끝으로 이병헌이 나오는 영화를 볼 수 없었다. 물론 그는 드라마에 나왔고, 아직 개봉하지 않은 다양한 영화에 참여해 계속 연기했다. 하지만 그의 영화는 약 3개월 간 관객을 만나지 못했다. 이병헌이 나오는 영화는 1995년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 이후 25년 간, 2003년 딱 한 해만 빼고 매년 있었다.

새 영화 ‘비상선언’ 개봉을 앞두고 이병헌을 만났다. 그는 “시사회를 마치고 무대에 올라 관객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나니 마음 안에서 뭔가 들끓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영화가 극장에 걸리기를 손꼽아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팬데믹이 있기 전까지 이게 저의 일상이고 루틴이었죠. 이런 상황을 오랜만에 마주하니 새삼 새롭더라고요. 내가 지나왔던 순간들이 참 행복한 일들이었다는 걸 새삼 알게 됐어요. 감사함을 많이 느껴요.”

이병헌이 한국영화계에 자리를 비운 그 시기에 온라인 스트리밍 시대가 열렸다. 관객이 영화관을 찾지 않게 되자 극장은 물론이고 영화계 전체가 말 그대로 초토화됐다. 그 역시 이대로 영화의 시대는 막을 내리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고 했다. “극장이 계속 남아있기는 하는 건지, OTT가 주류가 되는 시대가 온 건지, 별의별 생각을 다했어요. 아마 저를 포함한 배우들 그리고 이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잘되는 영화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극장은 죽지 않았구나, 영화는 계속되는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갖고 이병헌이 이번에 선보이는 영화 ‘비상선언’은 국내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항공재난영화다. 제작비 약 300억 원이 투입된 대작이다보니 대형 스크린이 있는 영화관에서 봐야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말 그대로 영화라는 말이 어울리는 작품이다. 이병헌은 딸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다가 비행기 테러 피해를 입는 ‘재혁’을 연기했다. 재혁은 기내가 대혼란에 휩싸이는 상황에서 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저도 아들을 둔 아빠잖아요. 그래서 아빠 연기를 할 땐 경험적으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 가진 아빠와 딸 가진 아빠는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저한테 육아는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근데 딸 가진 아빠들의 육아는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딸을 둔 아빠들을 많이 관찰했어요. 그런 것들을 연기에 반영하려고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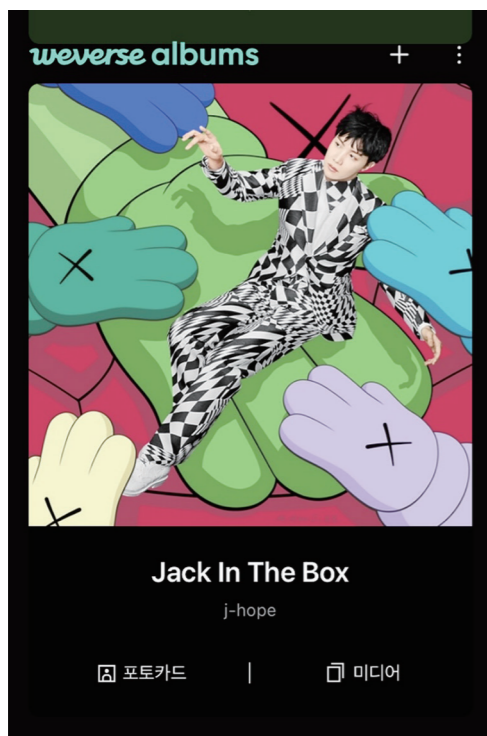
재혁이라는 인물의 또 한 가지 특징이라면 비행 공포증이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겪은 어떤 일 때문에 일종의 공황장애가 생긴 것이다. 이병헌은 20대 중반에 공황장애를 실제로 겪었다고 했다. 이 부분 역시 경험한 것들이 있어서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재혁이 겪는 것을 관객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호흡 증상, 그러다 보면 나오는 굳어진 표정과 눈빛, 광장히 불안해 하는 모습들, 이런 걸 다 보여줘야 했죠. 그러면서 재혁의 감정을 대사로 전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비상선언’은 비행기 내에서 벌어진 테러를 통해 인간 본질을 보여주는 시도를 한다.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남을 위해 희생한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 난관을 이겨내려고 한다. 이병헌은 “재난은 예측할 수도 없고 예고도 없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막을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재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는냐일 겁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는 남을 위해 희생한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 난관을 이겨내려고 한다. 이병헌은 “재난은 예측할 수도 없고 예고도 없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막을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재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는냐일 겁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BTS 제이홉 ‘잭 인 더 박스’ 위버스 앨범



아빠야 하는가. 많은 곳에서 실물 CD의 환경 유해성을 지적하며, 친환경적인 앨범 제작에 무게를 실는다. 물론 이 부분도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음반의 본령이 물성이 아닌 그 음악 자체라는 걸 증명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하이브가 위버스 앨범의 특징 중 하나로 내세우는 건 “CD 앨범과 동일한 고품질의 음원”이다. 실물 CD가 굵기가 되고 실상 노래는 음원사이트를 통해 듣는 흐름에서, 사실 K팝 팬이 CD급(16비트 44.1kHz) 음질을 듣기는 힘들었다. 다행히 최근 일부 음원사이트에서 고음질이나 돌비에트모스를 내세워 차별화를 꾀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번 제이홉의 위버스 앨범 사운드의 질감은 CD와 맞먹는다. 지글거림이 덜한 건 물론 베이스 영역의 사운드가 선명하다. 더블 타이틀곡 ‘모어(MORE)’와 ‘방화(ARSON)’ 역시 모 음원사이트 일반 음질로 들었을 때보다 더욱 생기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제이홉의 이번 위버스 앨범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사운드는 ‘왓 이프...(What If...), 울드스쿨 힙합 풍의 곡이자 1990년대 미국의 전설적인 힙합그룹 ‘우방클랜’에서 활약한 스타 래퍼 오디비(올 더티 베스터즈·Ol’ Dirty Bastard)의 ‘시미 시미 야(Shimmy Shimmy Ya)’를 샘플링한 이 곡은 긴장감을 조성하는 비트가 깔리고 그 위에 다양한 층위의 사운드가 스며들어 있다. 위버스 앨범은 이를 다 포착해냈다.

역시 울드스쿨 풍의 힙합으로 세련된 사운드가 돋보이는 ‘= (Equal Sign·이퀄 사인)’은 최근 제이홉이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유튜브 콘텐츠 ‘팔레트’에 출연해 그녀와 함께 부른 곡인데, 라이브 밴드 못지 않은 생생함이 위버스 앨범을 통해서도 느껴졌다.

방탄소년단의 메인 댄서인 제이홉이 ‘잭 인 더 박스’에서 자신의 장기를 총을 내세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채로운 사운드와 그 대신 군무를 펼쳤기 때문이다. 위버스 앨범은 그를 증명한 것이다.

술로 활동 병행이 주요 골자인 방탄소년단 2막의 선두주자인 제이홉은 ‘잭 인 더 박스’를 통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예고했다. 음악이든 음반 발매 형태든 모든 면에서 그걸 증명해나가고 있다.

‘잭 인 더 박스’는 실물 CD가 없음에도 지난 15일 음원 공개 이후 30일 자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200’에서 17위를 차지했다. 뒤늦게 발매된 제이홉의 위버스 앨범은 실물 CD가 없어 ‘빌보드 200’의 전통적인 음반 판매량 점수에는 합산이 되지 않는다. 다만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TEA(track equivalent albums), 스트리밍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SEA(streaming equivalent albums)에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트로를 지나 첫 트랙 ‘판도라 박스(Pandora’s Box)’부터 입체감이 생생했다.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J-hope·정호석)이 “내 영혼이 다듬어지며 생기는 모토와 바이브”라고 읊조릴 때 깔리는 신시사이저의 쾅한 동화성과 낮은 음역대 질감이 적조돼 사운드가 총출하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다.

지난 7월 29일 정식 발매된 제이홉의 첫 정규 앨범 ‘잭 인 더 박스(Jack In The Box)’ 위버스 앨범(Weverse Albums)은 ‘백문이 불여일견(見), 아니 백문이 불여일청(聽)’이었다. ‘백문’에 ‘문’의 한자는 ‘들음 문(聞)’을 쓴다. 그러나 ‘볼 견(見)’이 아닌 ‘들음 청(聽)’을 사용한 건 ‘듣는 것보다 듣는 것이 낫다’, 즉 ‘귀번(龍辯)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근데 문(聞)은 인지를 뜻하는 히어(hear)에 가깝고, 청(聽)은 귀를 기울인다는 리슨(listen)과 친하다. 그러니까 제이홉의 위버스 앨범이 단순히 듣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이게 한다는 뜻이다.

하이브(HYBE)가 제작한 ‘위버스 앨범’엔 일단 실물 CD가 없다. 포토카드, QR코드 등만 담긴 초경량 포장은 흡사 딱지를 접어놓은 것 같다.

QR코드를 인식해 스마트폰에 내려 받은 위버스 앨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앨범 전곡과 사진 콘텐츠 등을 감상하는 형식이다. 포토카드는 물론 사진집, 화려한 패키지 등 다양한 구성으로 듣는 재미보다 보는 재미를 꾀한 기존 K팝 음반 형태가 아니다.

이미 위버스 앨범처럼 스마트폰 앱 플랫폼을 사용해 듣는 형태는 다른 회사에서 출시됐다. 위버스 앨범 형태도 하이브 레이블즈 내에서는 ‘프로미스나인’과 ‘세븐틴(SVT)’이 먼저 냈다.

그렇다면 제이홉의 위버스 앨범을 왜 더 톡

‘한산:용의 출현’ 하루 66만명...누적 200만명 넘는다

지난 7월 30일 66만명 불러모아 누적 161만명

영화 ‘한산:용의 출현’이 하루에만 60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160만 관객을 돌파했다. 개봉 첫 주말에 누적 2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한산:용의 출현’은 30일 66만1073명을 추가하며 누적 관객수 161만4626명을 기록 중이다. 영화는 31일 오전 9시 현재 예매 관객수 24만명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주말 중 200만 관객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산:용의 출현’은 올해 국내 개봉 영화 흥행 순위 8위로 뛰어올랐다. 1위는 ‘범죄도시 2’(1269만명) 2위 ‘탐간:매버릭’(683만명), 3위 ‘닥터 스트레인지:대혼돈의 멀티버스’(588만명), 4위 ‘쥬라기 월드:도미니언’(283만명), 5위 ‘마녀’(280만명), 6위 ‘토르:러브 앤 썬더’(270만명), 8위 ‘헤어질 결심’(164만명) 순이다.

‘한산:용의 출현’은 2014년 1761만 관객이 봐 역대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 있는 ‘명량’의 후속작이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김한민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 수군을 격퇴한 한산도 해전을 그린다. 이순신 역은 배우 박해일이, 왜군 장수 와키자카는 변요한이 연기했다. 이밖에 김성규·안성기·손현주·김성균·김향기·옥택연 등이 출연했다. 제작비만 300억원 이상 투입된 대작이다.

이밖에 박스오피스 순위는 2위 ‘미니언즈 2’(12만5943명·누적 138만명), 3위 ‘탐간:매버릭’(11만9045명·누적 693만명), 4위 ‘외계+인 1부’(7만3678명·누적 128만명), 5위 ‘뽀로로 극장판 드래곤캐슬 대모험’(4만6922명·누적 12만명) 순이었다.



BTS 정국·찰리 푸스 협업곡, 英 오피셜차트 5주연속 진입



이 챗터2를 열고 개별 음악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정국의 협업곡이 영국 오피셜 차트에 5주 연속 머물렀다.

지난 7월 29일(현지시간)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정국이 미국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찰리 푸스와 6월 24일 발매한 협업곡 ‘레프트 앤드 라이트(Left and Right)’는 이번 주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 최신 차트(7월29일~8월4일)에서 85위를 기록했다.

지난 주 69위보다 16계단 하락했으나 비교적 장기간 차트 안에 머물고 있다. 발매 첫 주에 이 차트 41위로 진입했고, 해당 순위가 이 곡의 현재 최고 순위다.

오피셜 차트는 미국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

한류 듀오 ‘동방신기’가 약 2년6개월 만에 선보이는 일본에서 새 싱글을 발매한다.

지난 7월 30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동방신기는 내달 17일 새 싱글 ‘우츠로이(UTSURUI)’를 선보인다. 2020년 1월 발표한 ‘마자나시(まなざし)’ 이후 처음 선보이는 현지 새 싱글이다.

싱글 발매에 앞서 오는 31일 일본과 국내 음

대 팝 차트로 통한다. 이 차트의 싱글 차트 ‘톱 100’에서 방탄소년단의 최고 순위는 3위다. ‘다이너마이트’ ‘버터’ ‘마이 유니버스’(폴드플래이와 협업) 모두 이 순위를 기록했다.

‘레프트 앤드 라이트’는 최근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51위에 자리하며 4주 연속 해당 차트에 머물렀다.

‘레프트 앤드 라이트’는 올해 하반기 발매 예정인 푸스의 정규 3집 ‘찰리(CHARLIE)’의 수록곡이다. ‘라이트 스위치(Light Switch)’, ‘댓츠 힐러리어스(That’s Hilarious)’에 이어 선공개되는 세 번째 싱글이다. 푸스와 정국이 이 곡으로 4년 만에 호흡을 맞췄다. 뮤직비디오는 지난 13일 1억뷰를 돌파했다.

원사이트 등에 일본 신곡 ‘우츠로이’를 공개한다.

동방신기의 감성적인 보컬이 돋보이는 곡이다. 항상 곁에 있어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는 희망찬 메시지를 노래했다.

한편, 동방신기는 오는 8월2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에스엔타운 라이브 2022 : 에스엠씨유 익스프레스 @유먼 시티_수원(SMTOWN LIVE 2022 : SMCU EXPRESS @ HUMAN CITY_SUWON)’에 출연한다.

동방신기, 2년6개월 만에 日 싱글

오는 17일 새 싱글앨범 발매

원사이트 등에 일본 신곡 ‘우츠로이’를 공개한다.

동방신기의 감성적인 보컬이 돋보이는 곡이다. 항상 곁에 있어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는 희망찬 메시지를 노래했다.

한편, 동방신기는 오는 8월2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에스엔타운 라이브 2022 : 에스엠씨유 익스프레스 @유먼 시티_수원(SMTOWN LIVE 2022 : SMCU EXPRESS @ HUMAN CITY_SUWON)’에 출연한다.



HUMAN CITY_SUWON)에 출연한다.